

# 봉축사설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열렸다. 진리에 따르는 참된 생명의 모습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우리 속에 부처님을 모시는 참다운 삶을 약속받았다. 그러한 복된 세계가 열리지 어언 2542년, 우리는 다시 그 새로운 시간이 열린 복된 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게 되었다.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이들은 한없는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드리며,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진리의 세계에 몸을 던져 참된 생명을 살아갈 것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부처님세계를 건설할 것을 서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몸매 대한 한

없는 기쁨과 동시에 나의 신행을 통해 부처님을 이 세상에 여실하게 모셔야 할 큰 사명을 다지는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이러한 기쁨과 사명감 가운데, 이 즈음의 어려운 국내 여건에서는 불자로서의 사명감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이 오신 참된 의미를 이 세상에 퍼, 부처님 오신 기쁨을 나만의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합한 움직임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우리 불자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앞장서고, 좌절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어 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부처님 오신 날'은 진정으로 모든 이들이 기쁨을 함께 하는 날이 되지 못했다. 불자들이끼리의 봉축,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진

의 봉축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일은 불자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이 굳어진 문자로 남아있지 않고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다운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석되고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현실의 문제에는 손을 내밀지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참다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없는 복으로 여겨야 한다. 부처님에 대한 신앙으로 복을 받으려는 기복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자각하여 어떤 다른 종교인보다도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던져야

지금 이땅에 불국토를 건설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불교계가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현실에 임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현실은 불자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없는 수행의 터전이 된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이념으로 모든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며, 불국토 건설의 사명감으로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부처님이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봉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주자

정한 기쁨이 표출되는 봉축이 아니라, 다분히 무겁고도 의례적인 봉축행사에 치우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천간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단지 구두선으로 외우는 경향이 많았음을 드러내며 다르다.

더욱이 국내외로 어려운 시기인 이때 진정한 부처님 오신 날이 모든 사람

못하면서, 단지 현실에 지친 이들에게 정신적 안락을 주는 소극적인 모습을 탈피해야 한다. 현실의 문제를 뒤따라가며 그 위치따라가며 하는 불교가 아니라, 한발 앞서 이 사회를 이끄는 불교가 되도록 모든 불자들이 개인 눈으로 진지한 모색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단순한 개인 차원을 넘어 부처님이 청정한 승단의 모범에 따라 새로운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불자들부터 사찰을 중심으로 청정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움직임을 일으키고,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바로

우리의 참다운 신행을 통해 부처님이 이 세상에 거듭 거듭 오시게 하자. 누구보다도 소외되고 고통받고 차별받는 이들이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속에 부처님이 오시도록 하자. 그리하여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새롭게 열려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게 되었을 운 천하의 사람들이 함께 경축하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도록 하자.

### 각 중단 부처님오신날 봉축범어 요지

#### “마음밝혀 세상 감싸안자”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

지금 인류는 동서와 남북을 막론하고 풍요와 부를 찬미하며 전력을 다하여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물질문명의 가치관은 말지않은 장애에 인류를 앞둔 좌절에 봉착하게 할 것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만족할 만큼 부를 원하고 있지만 만족의 척도는 물질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만민의 일인되는 마음을 밝혀 만유를 감싸안는 자비심 위에 인간의 모든 행위가 싹터 나오게 해야 합니다. 털끝만한 이념의 차이가 있어도 현실세계에 나타날 때는 하늘과 땅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전(心田)을 계발하는 일은 과학이나 경제개발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우리 인간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땅 위에 인간이 스스로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의 극복도, 우리가 자비와 사마랑심으로 고통받는 동포를 끌어안고 맘 흔리며 슬기롭게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인류가 함께 밝아 가야할 인천(人天)의 대도(大道)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자유와 정정이 온 국토에 가득할 기원합니다.

#### “자비 베풀면 갈등 없어요”

**태고종 보성 종정**

부처님께서는 고통받는 우리를 제도하시고자 오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곳에는 갈등과 시비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줄 압니다. 또 이해와 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역시 많은 욕심과 야망·아집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역시 많은 동포들이 오래전부터 굶주림에 시달려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탄과 실직 그리고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동포들에게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이며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갖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광명을 베풀고 또한 밝히어서 오늘의 이 어려움과 위기를 하루속히 벗어나도록 합시다.

#### “원융정신으로 국민화합”

**천태종 도용 종정**

우리 사회는 불안과 고뇌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는 물론 나라의 경제가 중대한 난관에 처해 있는데 연유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외채로 인한 이 경제 공황을 극복하여 사회와 국가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초미의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러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의 화합과 원융정신으로 국민이 총화단결하고 이해와 협력으로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며, 종교적 사상과 행동으로 극과 극으로 치달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망기타(망기타)의 보살 정신과 대비구세주의(大悲救世主義)로 우리 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구출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은 자비입니다.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남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자비의 깊은 뜻입니다. 이기주의와 자기본위주의가 팽배하고 인간 심성이 매마른 오늘날의 인간사회의 있어 이 자비 정신이 깊이 침투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치 저 허공 중의 큰 구름으로부터 단비가 내려 산천 초목을 소생케하듯이 대자대비의 마음이 큰 구름이 되어 갈로의 비를 내려 온 중생들의 사들고 매마른 마음을 윤택케 하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 “탐진치 살피 眞我 찾아야”

**진각종 각해 총인**

석가모니부처님은 본래 그 본신(本身)은 청정한 법신부처님이시나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저 법계 만다라 공전으로부터 인간세계에 오셨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강생은 인간 존엄성과 만인이 평등함을 일깨워 주시며, 탐진치에 물든 자아를 여여히 성찰하여 진아(眞我)를 찾기 위함입니다.

자비의 대광명이 총명한 오늘, 우리는 지혜의 나눔과 자비의 이타행정신을 실천합니다. 일체 모두는 자신의 것이 아닌 부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서로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부(富), 아무리 큰 부(富)나 작은 부(富)라도 서로 나눔으로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유정, 비정들이 부처님의 지혜, 자비의 가피를 입어 내 허를 낮과 같이 밝게 보고, 상대 허를 밝과 같이 어렵게 볼 줄 아는 자성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비와 지혜의 등(燈)을 여법하게 밝혀 일체중생 모두가 무명을 걷어 내고 자성을 깨달아 인류 전체가 하나될 수 있는 복지구족(福智具足)한 만다라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서원합니다.

**현대만평**

부처님과 접속하세요

#### “이웃에 희망과 용기 주자”

**관음종 홍과 총무원장**

오늘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신뢰받는 세상,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따를러 말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그리고 어려운 이에게 베풀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믿음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무지와 탐욕 참회하도록”

**총지종 투경 종정**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진리를 실천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은 모두 우리 스스로 자아낸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탐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불자들부터 진정한 참회로써 그러한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류의 파멸을 막을 마지막 방법은 불교 뿐이니 불교의 융성정진으로 새롭게 태어납시다.

#### “선업 쌓아 좋은세상 구현”

**화엄종 구하 종정**

지금 때가 어렵다 할지라도 본심을 더럽히지 않으면 즐거움과 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배부른 자 더욱 배부르고 가난한 자 더욱 가난하여 흠뻑 눈물도 말라 마른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 악은 선에 녹는 법, 우리 모두가 선업을 쌓는다면 다시 좋은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허공에 뜬 달 뒤잡힌 것 아는가 이거야말은 세상 바로 보리라!

#### “봄바람 부니 만물이 생기”

**한국법종 일화 종정**

봄기운 온 대지 위에 가득하므로 만물이 생기를 얻는 것.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부처님만 오신날인가? 사람마다 평등하여 나고 오며 멀어져 가는 것 당연한 일인데 싯달태자 태에서 나와 동서남북 두루 일곱방씩 걸음마하는 괴짜를 부린 것. 그는 이미 육도인 육법(六凡)을 뛰어 넘었으며 한 손으로 하늘을 가르키고 또한 손으로 땅을 가르키니 인류의 평등한 법을 위치시켰다.

#### “인통융화 불국토 이루자”

**원융종 일공 종정**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부터 사회·국가 내지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인통융화(人通融和)'되어야 한다. '인통'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도와주는 인도(人道)의 기본 원칙이다. '융화'는 서로 단합하고 도와서 공존공영 하는 공동생활의 규범이다. 만인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새정치, 경제, 사회체제가 재정립되어야 이 사회는 평화롭고 안락한 이상사회가 될 것이다.

##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 **진관사**

주 지 진 관

대 중 일 동 신도 일 동

서울시 은평구 진관로동 1번지 TEL : 02-359-8410

대한불교 태고종 **고려산 불광사**

주 지 강 자 현

신도 일 동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53번지 미륵산중 TEL : 032-932-8083 FAX : 032-932-8083

대한불교 태고종 **지리사**

주 지 김 법 일

신도 일 동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121-1 TEL : 032-694-2836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

신도 일 동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번지 TEL : 0578-83-1161 FAX : 0578-83-6641

대한불교 조계종 **오봉산 석굴암**

회 주 초 안 주 지 도 일 신도 일 동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1번지 TEL : 0351-40-3573

**무애원 포교당**

원 장 설 봉 신도 일 동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3611 TEL : 02-846-2156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재웅 회원 일 동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31-80 TEL : 02-742-0172 FAX : 02-766-9305

관·음·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만의사**

주 지 김성직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TEL : 0339-376-6005, 3690

관만대장경 관각성지, 사적 259호 대한불교 조계종 **강화선원사**

조 실 선산큰스님 주 지 성원스님 신도회장 조원태·배발심화 합장 사부대중 일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5 TEL : 032-933-8234, 8834, 934-8484

지경기도 영험도량 **보현산 충효사**

주 지 해 공 신도회 일동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60 TEL : 0563-32-8196, 6006 FAX : 0563-32-6006